

**국내 최초 비점오염 저감공법 개발 각종 조명 생산부터 설치까지 한번에**

**화림H&E(주)**



춘천의 화림H&E(주)(대표:오성남)는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토목·건축자재를 생산, 시공하는 기업이다. 주요 분야는 하천, 도로, 산림 등의 토목자재와 건축자재 생산이다. 주요 자재로는 하천 분야의 식생매트, 친환경 응벽블록, 식생호안블록 등이며 도로 분야로는 식생이 가능한 보강토응벽블록, 계단식 화단의 녹화공법, 친환경 잔디블록 등이 있다. 또 산림 복원을 위한 식생매트 및 수로공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형 비점오염 저감공법을 개발, 도로 및 산림 현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화림은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친환경기업을 목표로 성장 중이다.

**(주)한국엘이디**



춘천의 (주)한국엘이디(대표:허성수)는 LED를 이용한 가변색 광원의 개발을 시작으로 경관조명, 가로등 및 보안등, 스포츠조명 등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설계부터 완제품 설치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기업이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환경보호는 물론 세상의 밤을 아름다운 빛으로 디자인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업체의 생산품은 교량, 건축물, 공원 등에 사용되는 LED 경관조명과 고풍력 스포츠 전용 투광등이 있다. 또 LED 가로등, LED 보안등, LED 터널등과 같은 도로조명 설비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신기술 이용 도로 사면보호공법 선도 마을에서 바다까지 수자원 개발 전문**

**(주)엠케이지오이앤씨**



원주의 (주)엠케이지오이앤씨(대표:나중호)는 국내 도로 사면보호공법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안전으로 귀결된다는 목표로 품질시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회사의 제품인 '스프링을 이용한 육각낙석방지망 기술'은 방재신기술 제7호로 지정되어 있는 공법으로 육각형태의 낙석방지망 타입이다. 시간적 안정과 구조적 안정성을 겸비한 사면보강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리형 낙석방지책'은 와이어로프와 철망을 경간별로 분리 설치, 시공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한스개발**



홍천의 한스개발(대표:한광용)은 1998년 홍천으로 이전한 후 홍천·인제·양구의 마을 지하수 개발공사에 참여한 기업이다. 한스개발은 자연과 생명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자연을 보금자리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여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제품 생산에 매진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수자원 개발, 암반탱크함수공법,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정수·하수처리공사, 신재생에너지, 상하수도·기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 해양심층수 개발업 등 다양하다.

현재 착정기, 보링착정기, 카고크레인, 컴프레서 등의 장비를 보유 중이다.

**본보 지면 홍보 매출 증가 기대**

◇이번 강원에코홈페어 2015 주택·건설·건축박람회에 40여 개 업체가 부스를 만들어 참가.

참여한 업체들은 회사의 제품 및 신기술이 매일 강원일보 지면을 통해 홍보되며 실제 계약 체결과 매출 증가를 기대.

지역 주민들도 강원일보를 열독한 후 박람회에서 관심이 있는 부스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찾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경쟁력 있는 도내 업체들의 위상을 실감.

**김진태 국회의원 관계자 격려**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27일 강원 에코홈페어 2015가 열리는 춘천 호반체육관을 방문해 참가 업체 및 지자체 부스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 1시간 이상 박람회장에 머물며 도내 업체의 특허 신기술 및 우수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도 청취. 김 의원은 “도내 업체들은 그동안 홍보 기회 및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강원에코홈페어는 도내 유일한 주택·건설·건축박람회로 성과와 실적도 중요하지만 행사 개최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



◇강원에코호텔어 2015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15 강원 친환경 건축 콘퍼런스'가 27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강원 친환경 건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 “한옥 이용 체험형 관광자원 조성”

## 강원 친환경 건축 콘퍼런스

한옥에 대한 활용 및 지원정책으로 한옥을 지역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부연구위원은 27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2015 강원 친환경 건축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원 친환경 건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서 신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한옥지원정책으로 한옥에 대한 선호도 및 거주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옥이 지역 브랜드화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옥시장의 규모도 커져 우리나라 목조건축 시장을 약 2조원으로 봤을 때 한옥시장은 약 2,000억원”이라며 “건축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인 반면 목조건축시장은 20% 이상 성장을 지속 중”이라며 앞으로도 한옥건축산업의 성장을 예측했다.

이어 한옥마을개발 방향에 대해 “개별 한옥에 대한 지원보다 마을기반시설 등의 지원과 한옥공공건축물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한옥건축물의 문화계승과 관광형 교육 연수시설 조성 및 한옥을

## “한옥 수요 증가·문화 계승 필요”

### 신치후 한옥센터 부연구위원 주장

이용한 체험형 관광자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함께 이진영 한일엠이씨 전무가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여 냉방과 난방 에너지 사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패시브(Passive) 냉난방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구재오 강원대 도시건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서지영 TAAL 디자인랩 소장, 조민구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사무국장, 조항만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최규호 QJ Architecture 대표가 참석한 토론회가 펼쳐졌다. 김보경기자 bkk@



도청 공무원들 강원에코호텔어 참관 강원에코호텔어 2015 주택·건설·건축박람회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27일 박람회장을 찾은 도청 공무원들이 업체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 / 이모저모 /

### 네일아트·캐리커처 코너 인기 인근 상인 매출 올라 함박웃음

◇강원에코호텔어 2015에는 도내 업체의 제품 전시와 함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눈길. 네일아트 코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부 남성 관람객도 박람회 방문을 기념하며 네일아트에 참여, 캐리커처 코너에도 단체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큰 호응. 휴페어 문화마당에는 화천한옥학교 6기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목재가구가 전시되며 방문객은 물론 부스 참여업체 관계자들에게 인기.

◇이번 강원에코호텔어 2015 주택·건설·건축박람회에는 지자체와 업체 관계자, 단체 관람객, 지역 주민 등이 몰리며 춘천 호반체육관 인근 지역 상권 매출 증가를 견인.

4일간 열리는 박람회 기간 부스 관계자 등은 지역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하며 얼어붙은 지역 상경기 회복에 도움.

지역 상인들도 매년 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함박웃음.

**Taein** 건축사·위재성  
태인도시ENC종합건축사사무소

- BUSINESS  
건축실계  
사업성분석  
자구단위계획
- PROJECT  
시내시타워  
시내프라자  
정안프라자  
무실주민센터 기본계획

대표전화: 033)747-1806 FAX: 033)823-4818  
원주시 무실동 원주시청 맞은편(로얄타워 3층)